

# 거주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각 실의 요구 및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pace Requirement and Planning for Residents Characteristic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 수 오 혜 경\*

겸임교수 홍 이 경\*\*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Division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

Professor : Oh, Hye-Kyung

Adjacent Professor : Hong, Yi-Kyung

---

### <Abstract>

According to the change in diverse tendency of residents, construction companies has developed the brands of apartments with the concepts of LOHAS, well-being, ubiquitous,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space requirement and planning for residents characteristic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adopted in this study and 252 ca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urvey analysis has been made by using of SPSS WIN 12.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Resident opinion about the direction of each space was investigated into the need of South-facing in master bedroom highly. (2) The residents didn't want to decrease the current size of each space, the space which wanted to increase was livingroom. (3)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space requirement and planning for residents characteristics were family life cycle, the age of householder, the occupation of householder, the size of apartment.

---

▲주요어(Key Words) : 아파트(apartment), 평면(floor plan), 각 실 요구(space requirement), 거주자 특성(residents characteristic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과 요구가 다양화 되면서 건설사들은 아파트에 브랜드를 내세운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 주된 차별화 전략으로는 웰빙, 로하스, 유비쿼터스,

원스톱리빙, 고급화된 실내의 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공해 자재와 고급재료의 사용, 자연미의 강조, 부대복리시설의 강화, 나아가 유명디자이너들의 설계에 의한 전문성의 강조 등 그 경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아파트 전체의 공원화 및 주민 편의시설의 계획, 현관전실의 제공, 보조주방의 설치, 좁은 면적의 아파트에도 2개의 욕실 설치, 드레스룸의 설치 등이 있으며 또한 거실과 현관에는 아트월과 우물천장 등을 설치하여 고급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걸맞게 장식장이나 신발장 등의 불박이 수납가구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대리석, 원목, 등의 재료나 부엌시

---

\* 주 저 자 : 오혜경 (E-mail : ohk@khu.ac.kr)

\*\* 교신저자 : 홍이경 (E-mail : lucis@hanmail.net)

스텝, 욕실 위생기기 등도 고급화 하고 있다.

이렇게 각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단지 전체나 단위평면의 배치, 자재의 고급화 등에 편중되었고 각 공간에서는 외부인에게 보여 지는 주방과 욕실 또는 거실이나 현관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실은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전략의 뒷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각 실은 실제적인 사용시간이 가장 길며 많은 개인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므로 보다 세밀히 계획되어야한다. 이렇게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거주자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 될 것이며, 따라서 각 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표 1> 조사대상가구의 아파트 평면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은 불특정 다수의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주요구를 추정하여 표준화된 계획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획일적인 계획을 개선하고자 다양화가 모색되고 있는데 거주가구의 주요구를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가구주의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이 주된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조성희, 박수빈;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아파트 각 실에 대한 거주자들의 실제적인 공간 요구 및 계획방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 분야나 실내계획에 관련된 분야에서 아파트의 실 계획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시 장안동에 위치한 분양면적 22평~50평의 H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이를 대상으로 선정한 일차적 이유는 본 논문이 H건설과의 산학협동 과제를 수행한 연구라는 점이고, 대상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다양한 평면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사는 의도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내용은 우선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아파트 각 실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항목을 구성하였고, 각기 다른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분석방법으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보완하여 이들 각기 다른 연구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설문지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 실의 배치(향과 통풍), 각 실의 규모(각 실의 크기 변경 및 이상적인 실의 수), 각 실의 위치 변경, 안방의 크기 및 위치, 안방 및 자녀방의 가구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조사는 2007년 5월7일~5월30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52부가 유효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주민을 만나 대면하고 부탁하여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보

<표 2>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가족 수	1~2인	36(14.3)
	3인	69(27.4)
	4인	124(49.2)
	5인 이상	23( 9.1)
가족생활주기	미취학기	51(20.0)
	초등교육기	56(22.2)
	중등교육기	21( 8.3)
	성인기 이상	124(49.2)
가구주 직업	회사원	101(40.1)
	경영직, 관리직	12( 4.8)
	판매서비스직	113(44.8)
	전문직, 기술직	7( 2.8)
	기 타	14( 5.6)
가구주 연령	30~39세	78(31.0)
	40~49세	57(22.6)
	50~59세	63(25.0)
	60세 이상	49(19.4)
소 득	200만원 미만	18( 7.1)
	200~300만원 미만	59(23.4)
	300~400만원 미만	61(24.2)
	400~500만원 미만	55(21.8)
	500만원 이상	59(23.4)
평형대	20평형대	48(19.0)
	30평형대	155(61.5)
	40~50평형대	49(19.4)

다 대면 또는 아는 사람의 부탁에 의한 답변이 훨씬 양질의 답변이 나올 것이라 판단에서였다. 분석은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 III. 연구결과

####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으로 가족수, 가족생활주기, 가구주의 직업 및 연령, 소득, 평형대를 살펴보았다. 가족수는 4인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3인(27.4%), 1~2인(14.3%), 5인 이상(9.1%)의 순이었다. 가족생활주기는 성인기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49.2%)이 가장 많았고, 초등교육기(22.2%), 미취학기(20.0%)로 조사되었으며, 중등교육기는 8.3%로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직업은 판매서비스직(44.8%)이 가장 높

았으며, 회사원(40.1%)로 높게 조사되었다. 소득은 가계의 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는데, 300~400만원 미만(23.4%)로 높았고, 200~3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은 모두 23.4%로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소득은 200만원 미만 가구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조사대상가구의 평형대는 30평형대가 61.5%로 가장 많았고, 20평형대 19.4%, 40~50평형대 19.0%로 각각 조사되었다(<표 2> 참조).

#### 2. 각 실의 향과 통풍

##### 2.1 각 실의 향

각 실의 향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안방 남향에 대한 요구가 4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방 남향/안방 북향(31.3%), 공동공간 남향/안방 자녀방 북향(2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안방이 남향인 것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기존 아파트 평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방이 남향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방 남향/안방 북향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높게 조사된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특히 가족생활주기가 초등교육기 가족의 경우 이에 대한 요구가 다른 가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생 자녀를 둔 가족들이

1) 아파트를 찾아가 부녀회장 또는 주민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성의 있는 답례품을 증정함으로써 그 주민이 다른 주민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lt;표 3&gt; 거주자 특성별 각 실의 향에 대한 요구

구 분	안방남향	자녀방남향, 안방북향	공동공간남향, 안방자녀방북향	기 타	계	X <sup>2</sup>	
가족생활주기	미취학기	22(43.1)	18(35.3)	7(13.7)	4(7.8)	51(100.0)	23.770*
	초등교육기	19(33.9)	25(44.6)	9(16.1)	3(5.4)	56(100.0)	
	중등교육기	6(28.6)	8(38.1)	4(19.0)	3(14.3)	21(100.0)	
	성인기 이상	63(50.8)	28(22.6)	32(25.8)	1(0.8)	124(100.0)	
	전 체	110(43.7)	79(31.3)	52(20.6)	11(4.4)	252(100.0)	
가구주 연령	30~39세	30(38.5)	32(41.0)	10(12.8)	6(7.7)	78(100.0)	23.030*
	40~49세	21(36.8)	21(36.8)	12(21.1)	3(5.3)	57(100.0)	
	50~59세	31(49.2)	16(25.4)	15(23.8)	1(1.6)	63(100.0)	
	60세 이상	25(51.0)	9(18.4)	15(30.6)	0(0.0)	49(100.0)	
	전 체	107(43.3)	78(31.6)	52(21.1)	10(4.0)	247(100.0)	

\*p&lt;.05

&lt;표 4&gt; 거주자 특성별 각 실의 통풍에 대한 요구

구 분	신경안쓰	창이 한면	창이두면, 맞바람통풍	기 타	계	X <sup>2</sup>	
가족생활주기	미취학기	1(2.0)	11(21.6)	36(70.6)	3(5.9)	51(100.0)	19.815*
	초등교육기	0(0.0)	22(39.3)	34(60.7)	0(0.0)	56(100.0)	
	중등교육기	0(0.0)	5(23.8)	16(76.2)	0(0.0)	21(100.0)	
	성인기 이상	10(8.1)	33(26.6)	80(64.5)	1(0.8)	124(100.0)	
	전 체	11(4.4)	71(28.2)	166(65.9)	4(1.6)	252(100.0)	

\*p&lt;.05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현재보다 좋게 해주려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거주자 특성별 각 실의 향에 대한 요구에서 가구주 연령에 따라서도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구주 연령이 30~39세인 경우 자녀방남향/안방북향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았고, 60세 이상인 경우 안방남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표 3>). 이러한 결과는 가족생활주기와 연관하여 볼 때 가구주의 연령이 30~39세인 경우 자녀들이 대부분 초등교육기에 해당되고 60세 이상의 경우 자녀들이 성인기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2.2 각 실의 통풍

각 실의 통풍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으로는 가능하다면 창이 두면에 있어 맞바람 통풍이 가능한 것을 원하는 비율이 65.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창이 한면인 경우도 28.2%로 조사되어 각 실의 통풍을 위해 자연환기를 위한 창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계획의 특성상 각 실별로 창이 두면에 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를 계획에 반영시키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 실의 통풍에 대한 견해를 고려하여 계획이 가능한 실이나 기타 다른 주택유형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거주자 특성별 각 실의 통풍에 관한 요구를 살펴보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각 실 통풍에 대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 중등교육기 가족의 경우 창이 두면인 것에 대한 요구가 다른 가족에 비해 높았고 초등교육기 가족의 경우 창이 한면인 것에 대한 요구가 다른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인기 이상 가족의 경우 신경안쓰에 대한 비율이 높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자녀가 교육기에 있는 가족의 경우 건강과 교육을 위한 환경을 좋게 하고자 통풍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환기가 잘되는 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가 성인기에 있는 가족의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적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3. 각 실의 크기

아파트 각 실에 대해 집 전체 평수의 변화없이 거주자들의 실 크기에 대한 변경요구를 축소하고 싶은 공간과 확장하고 싶은 공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축소하고 싶은 공간으로는 현재 실크기 고수(28.6%)가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의 실 크기에 대한 공간축소의 요구가 많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안방이 26.6%로 실크기 고수에 대한 비율과 비슷하게 조사되면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징적인 것으로서 현재 조사된 20평형대 아파트 안방(부부침실)의 경우 다른 침실공간에 비해

<표 5> 각 실의 크기 변경

	축소하고 싶은 공간	확장하고 싶은 공간
거실	13( 5.2)	58( 23.0)
주방 및 식당	10( 4.0)	27( 10.7)
부부욕실	15( 6.0)	7( 2.8)
공동욕실	5( 2.0)	19( 7.5)
안방	67( 26.6)	9( 3.6)
침실1	18( 7.1)	31( 12.3)
침실2	16( 6.3)	32( 12.7)
침실3	6( 2.4)	3( 1.2)
드레스룸	5( 2.0)	5( 2.0)
기타	25( 9.9)	14( 5.6)
실크기 고수	72( 28.6)	47( 18.7)
전체	252(100.0)	252(100.0)

<표 6> 거주자 특성별 이상적인 실의 수에 대한 요구

구분	2개	3개	4개	5개	계	X <sup>2</sup>	
가구주 직업	회사원	8( 7.9)	65(64.4)	28(27.7)	0( 0.0)	101(100.0)	56.366***
	경영직, 관리직	0( 0.0)	7(58.3)	5(41.7)	0( 0.0)	12(100.0)	
	판매서비스직	4( 3.5)	79(69.9)	29(25.7)	1( 0.9)	113(100.0)	
	전문직, 기술직	0( 0.0)	2(28.6)	3(42.9)	2(28.6)	7(100.0)	
	기타	0( 0.0)	11(78.6)	3(21.4)	0( 0.0)	14(100.0)	
	전체	12( 4.9)	164(66.4)	68(27.5)	3( 1.2)	247(100.0)	
평형대	20평형대	7(14.6)	35(72.9)	6(12.5)	0( 0.0)	48(100.0)	80.463***
	30평형대	4( 2.6)	121(78.1)	29(18.7)	1( 0.6)	155(100.0)	
	40~50평형대	1( 2.0)	10(20.4)	36(73.5)	2( 4.1)	49(100.0)	
	전체	12( 4.8)	166(65.9)	71(28.2)	3( 1.2)	252(100.0)	

\*\*\*p<.001

약 1.5평 이상 크며, 온 가족이 사용하는 거실, 부엌과 거의 같은 규모로 공급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이에 대한 크기조정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파트 규모가 커지면 안방에서의 주행위를 분산시키는 여러 기능을 가진 실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드레스룸, 서재 등) 이에 대한 크기조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밖에 축소를 원하는 공간으로 기타(9.9%), 침실1(7.1%), 침실2(6.3%) 등이 조사되었다.

확장하고 싶은 공간으로는 거실이 23.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거실이 가족의 공동생활공간으로서 이에 대한 공간확장의 요구가 큼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20평형대 거주자들의 거실공간 확장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35.4%)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가족주기가 미취학기 가족의 경우 안방은 줄이는(29.4%) 대신 거실에 대한 확장요구(25.5%)가 가장 많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실크기 고수(18.7%), 침실2(12.7%), 침실1(12.3%)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초등학교기 가족의 경우도 안방을 줄이고(41.1%) 초등학교기의 자녀들의 주된 생활공간이 침실1,2(각각 23.2%)에 대한 확장요구를 나타내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표 5>참조).

#### 4. 이상적인 실의 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실의 수를 조사하면 20평형대와 30평형대는 3개, 40평형대와 50평형대는 4개였다. 현재 아파트의 실의 수와 거주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실의 수를 비교해 보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이상적인 실의 수와 현재 실의 수는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거주자 특성별 이상적인 실의 수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직업과 평형대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6>).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 기술직의 경우 4~5개 실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았고, 기타의 경우 3개 실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형대 별로 보면, 20평형대는 다른 평수에 비해 2개 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30평형대는 3개 실, 40평~50평형대는 4개 실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20~30평형대 2~3개 실, 40~50평형대 4~5개 실로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lt;표 7&gt; 거주자 특성별 각 실의 위치 변경에 대한 요구

구 분	안방-자녀방	부엌/식당-안방	부엌/식당-자녀방	현위치 고수	계	X <sup>2</sup>	
가족생활주기	미취학기	19(37.3)	1( 2.0)	12(23.5)	19(37.3)	51(100.0)	17.839*
	초등교육기	18(32.1)	4( 7.1)	12(21.4)	22(39.3)	56(100.0)	
	중등교육기	10(47.6)	2( 9.5)	1( 4.8)	8(38.1)	21(100.0)	
	성인기 이상	24(19.4)	18(14.5)	27(21.8)	55(44.4)	124(100.0)	
	전 체	71(28.2)	25( 9.9)	52(20.6)	104(41.3)	252(100.0)	
가구주 연령	30~39세	32(41.0)	5( 6.4)	10(12.8)	31(39.7)	78(100.0)	22.336*
	40~49세	17(29.8)	2( 3.5)	13(22.8)	25(43.9)	57(100.0)	
	50~59세	15(23.8)	9(14.3)	13(20.6)	26(41.3)	63(100.0)	
	60세 이상	7(14.3)	8(16.3)	15(30.6)	19(38.8)	49(100.0)	
	전 체	71(28.7)	24( 9.7)	51(20.6)	101(40.9)	247(100.0)	
평형대	20평형대	21(43.8)	2( 4.2)	3( 6.3)	22(45.8)	48(100.0)	31.863***
	30평형대	49(31.6)	17(11.0)	37(23.9)	52(33.5)	155(100.0)	
	40~50평형대	1( 2.0)	6(12.2)	12(24.5)	30(61.2)	49(100.0)	
	전 체	71(28.2)	25( 9.9)	52(20.6)	104(41.3)	252(100.0)	

\*p&lt;.05, \*\*\*p&lt;.001

대부분의 아파트 공급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은 40~50평대의 경우 3개 실에 대한 요구도 20.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실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평형대는 실의 수를 3개를 우선 공급하되 2개 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30평형대는 3개를 우선 공급하되 4개(약 20%)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0~50평형대의 경우 4개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지만 3개(약 20%)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5. 각 실의 위치 변경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면은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판상형이면서 부부침실 후면배치나 주방/식당의 전면배치 등을 시도하지 않은 평면이었다. 이제까지 공급된 이러한 일반적인 평면에 대해 거주자들은 현재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41.3%로 가장 높았으나, 거주자들은 현재 각 실의 위치에 대해 위치변경에 대한 요구가 약 60%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안방을 자녀방으로 28.2%, 부엌/식당을 자녀방으로 20.6%, 부엌/식당을 안방으로 위치를 변경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9.9%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표 7>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거주자 특성별 각 실의 위치변경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가족생활주기, 가구주 연령, 평형대에 따라 유의수준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 중등 교육기 가족의 경우 안방을 자녀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자녀방을

보다 넓고 채광에 좋은 안방으로 변경하고 싶은 요구를 나타낸 결과로 보여진다. 가구주 연령에 있어서도 30~39세 가구주의 경우 역시 안방을 자녀방으로 바꾸기를 희망하였는데, 이 역시 자녀들이 교육기에 있는 가족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의 경우 부엌/식당을 자녀방과 바꾸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자녀들의 연령이 이미 성인기에 있거나 출가한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가사활동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부엌/식당의 위치를 기존 복향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형대별로는 20평형대에서 다른 평형대에 비해 안방을 자녀방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 역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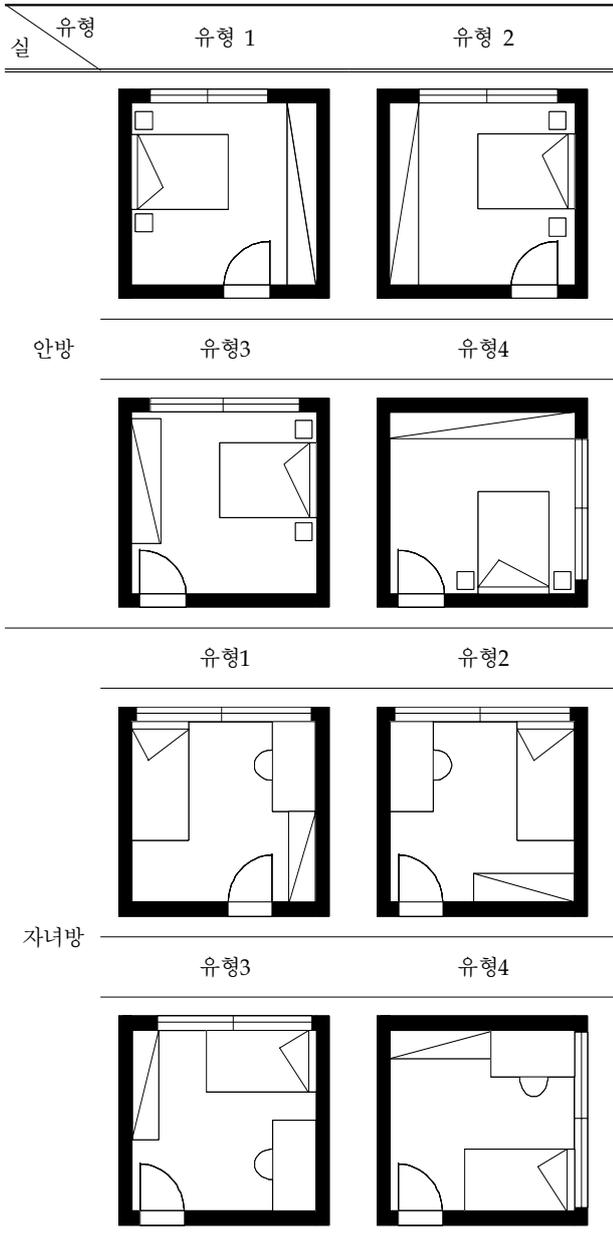
## 6. 안방과 자녀방의 배치

안방과 자녀방의 배치는 출입문 및 창문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9> 참조). 안방의 경우 유형1은 문과 창문이 마주보며 수납장이 문 뒤 벽면 전체에 위치한 것이며, 유형2는 문과 창문이 마주보며 수납장이 침대 맞은편 벽면에 위치한 것, 유형3은 문과 창문이 마주보며 침대가 문에서 멀리 위치하고 수납장 크기가 작은 것이며 유형4는 문과 창문 'ㄱ'자이고 수납장이 침대 맞은편 벽면에 위치하여 문과 침대가 가까운 유형이다. 조사결과 유형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유형3, 유형2, 유형4의 순이었다(<표 8> 참조). 안방의 배치에 대해 거주자들은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제까지 공급된 아파트 안방의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는

<표 8> 안방과 자녀방의 배치요구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계
안방	97(38.5)	60(23.8)	61(24.2)	34(13.5)	252(100.0)
자녀방	63(25.0)	98(38.9)	59(23.4)	32(12.7)	252(100.0)

<표 9> 안방과 자녀방의 출입문 및 창문 위치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이를 당연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형1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침대의 위치가 출입문에서 멀리 위치하는 것과 수납공간이 크게 배치되기를 원하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아파트 공급시 안방의 배치는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방의 경우 유형1은 문과 창문이 마주보며 책상과 옷장이 문 뒤에 일렬배치된 것이며, 유형2는 문과 창문 마주보며, 침대와 책상이 창 쪽에 배치된 것, 유형3은 문과 창문이 마주보며 옷장과 침대가 창 쪽에 배치된 것, 유형4는 문과 창문이 ㄱ자로 책상과 옷장 문과 마주보게 배치한 유형이다. 조사결과 유형2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유형1, 유형3, 유형4의 순이었다(<표 8> 참조). 이같은 결과에서 보면 거주자들은 안방의 배치에서처럼 출입문과 창문이 마주보는 배치에 대한 요구가 컸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침대와 책상이 창쪽에 배치되고 침대는 출입문 쪽에서 멀리 배치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컸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녀방 역시 이러한 가구의 배치를 고려하여 출입문과 창문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획일적인 아파트 계획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화 모색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거주가구의 주요요구를 변화시키는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가구주의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 거주자 특성에 따라 아파트 각 실에 대한 거주자들의 실제적인 공간 요구 및 계획방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거주자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간의 요구사항을 연관시켜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각 실의 요구 및 계획방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가족생활주기,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평형대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기존의 보편적 주요요구를 표준화된 계획으로 이루어져온 현재의 불특정 다수의 거주가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거주자들의 다양한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한 다양화된 향후 아파트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가족생활주기가 초등교육기 가족의 경우는 자녀방 남향/안방 북향에 대한 요구가 다른 가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에 비해 성인기 가족의 경우 이와는 반대의 성향을 나타내었고, 각 실의 위치변경에 대해 중등교육기 가족의 경우 안방과 자녀방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녀들의 교육기에 해당하는

초등교육기, 중등교육기 가족의 경우 자녀방의 향은 남향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안방과 자녀실의 크기 및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가구주의 연령은 각 실의 향, 각 실의 위치변경에, 가구주의 직업은 이상적인 실의 수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30-39세의 경우 자녀방을 남향으로 하고 안방을 북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요구와 안방을 자녀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요구도 높았는데, 이는 자녀들의 육아 및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 기술직일 경우 4-5개 실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아파트의 평형대에 따라서는 이상적인 실의 수와 각 실의 위치변경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즉,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공급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20-30평형대 2-3개실, 40-50평형대 4-5개실에서 20평형대는 3개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2개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30평형대는 3개를 우선공급하고 4개실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40-50평형대의 경우 4개를 우선 공급하되 3개도 선택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문 헌】

강형구 외(2005),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 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6(3), 1-7.

김석경 · 임미숙(2005), 맞벌이 가족의 주생활 특성 및 주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10).

김세진 외(2003), 도시 생활 실태를 반영한 아파트 주거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3(1), 59-62.

김수진 · 이영수(2004),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 102-109.

박인석 · 김진환(2002), 안방 후면배치 아파트평면의 거주자 반응 평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2).

박수빈 외(2003), 아파트 평면유형 및 가구특성에 따른 공간사용 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12), 71-96.

박수빈 외(2005),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부부 전용공간 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계획계**, 23(2), 11-14.

박혜선(2003), 중소형 아파트의 거주 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 논문집**, 14(4), 121-130.

오찬옥(2003), 아파트 거주자의 평면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 21-31.

오찬옥 외(2004), 아파트 거주자의 평면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 21-31.

양세화 외(2006) 아파트 공간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 논문집**, 17(4), 93-100.

이복희 외(1999),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0(2), 185-193.

이종근(2002),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 요구도 분석에 의한 단위 평면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사례의 거주 후 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조성희 · 박수빈(2000),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6(6), 11-20.

조성희 · 박수빈(2001),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주요구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9), 109-119.

최윤정 · 김민정(2003),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4(6), 23-32.

최정원 외(2006), 거주자 평가(POE)를 통한 아파트 주호 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6).

□ 접 수 일 : 2008년 09월 15일

□ 심 사 일 : 2008년 09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10일